

이성의 한계와 자유의 의미

사공영호*

〈目 次〉

- | | |
|--------------------------------------|--------------------|
| I. 서론 | IV. 이성의 한계와 자유의 의미 |
| II. 문제의 제기: 이성과 자유의 상충 위험 | V. 결론 |
| III. 이성의 작동원리와 한계:
신경과학적 측면을 중심으로 | |

〈요 약〉

진화생물학에 의하면, 인간의 이성은 본래부터 진리나 공정한 지식의 도구가 아니다. 생존과 삶의 유익을 위한 장치다. 중립적이고 엄밀한 학문을 위한 도구도 아니며, 정치를 위한 도구는 더 더욱 아니다. 인지의 중추인 두뇌는 두개골 속 어두운 방에 자리하고 있다. 세상을 직접 접하지 못한다. 수백억 뉴런의 발화가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세상에 대한 지각과 판단을 도출해내야 한다. 경험의존적인 해석규칙에 의한 과감한 추론을 시도할 수밖에 없고, 우연하고 자의적인 추론과 해석의 결과임에도 이를 믿는 방식으로 신경시스템은 작동하고 있다. 추론을 위해 동원하는 언어 역시 실재에 대한 서술의 도구가 아니라 해석의 맥락과 단위를 자의적으로 창조하는 도구다. 그럼에도 해석체계의 주관성 및 자기참조성과는 상관없이 '생생하게' 해석결과를 경험하도록 인간의 인지신경시스템은 작동한다.

아무리 생생해도 공정한 인식이란 있을 수 없다. 해석의 주관성을 피할 수 없다. 자유에 대한 자의적 억압의 위험은 여기서 발생한다. 사회과학 역시 중립성과 과학성을 충족할 수 있는 여건에 있지 않다. 공감과 합의에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정치와 정책 역시 주관적 해석에 기초한 억압의 장치일 뿐이다. 특정한 해석을 모두에게 강요하는 장치일 뿐이다. 자유가 소중한 것은 이성과 학문과 정치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학문과 정치에 의지한 문제해결 역시 자유의 원칙에 기초해야 인간의 개별성 및 실존성과 조화될 수 있다.

【주제어: 자유, 이성, 인지신경시스템, 언어, 정치, 해석, 추론, 추론기계, 해석 맥락의 창조, 믿음, 인식의 불가역성 문제, 통제된 환상(controlled hallucination), 이성의 표리부동성, 이성의 자기기만성, 학문 실패, 정부 실패, 하이에크】

* 평택대학교 국제무역행정학과 교수(sakongyh@ptu.ac.kr)
논문접수일(2019.4.13), 수정일(2019.5.23), 게재확정일(2019.5.31)

I. 서론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 것은 독재적이고 비민주적인 정부와 정치다. 헌법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 권력을 나눠 서로 견제하게 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부가 최고의 문제해결자로 등장하고 있다. 사실상 정부가 원하는 만큼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선거공약이라는 정치적인 이유에서부터,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는 경제적 이유로, 더 큰 행복과 정의에 기여한다는 사회적 이유로 자유에 대해 기꺼이 제약을 가하고 있다. 단지 다수가 동의했다는 이유로, 합법적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유에 대한 억압이 정당화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대학평가처럼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는 행동이 아님에도 당사자에게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법과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 자사고의 일반학교화 요구처럼 외부경제효과라는 이론적 측면에서는 정부가 지원을 제공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억압적인 개혁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역사적으로 견제의 대상이던 정부가 만능의 문제해결 도구가 될 수 있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정부와 정치의 위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을까? 이 연구가 제시하는 답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막연한 믿음 즉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이며, 따라서 우리의 이성의 능력에 의지하여 세계에 대한 진리의 획득이 가능하다는 막연한 믿음이 자기 판단의 주관성과 자기참조성에 대해 망각하게 만들고, 이론화된 연구의 중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사실성에 대해 오해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정책의 효과에 대해 오해하게 만들고, 정치에 의한 문제해결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오해하게 만들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 연구자들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공리주의적인 시각을 취한다. 정책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편익과 비용을 잘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형성한다면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인간의 이성은 이와 같은 공리주의적인 접근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까? 적어도 현대 철학과 인지과학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무엇이 이익이며 무엇이 비용인지를 공정하게 서술해낼 수 있는 존재론적 조건을 갖추고 있지도 않고 인식론적 조건을 갖추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은 이런 인식론적 약점을 냉정하게 반성하고 검증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진화생물학적으로 보면, 이런 방식은 생존을 보장하지 못한다.

이 연구 역시 자유가 최고의 가치이거나 유일의 가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분명한

것은 개인의 자유가 너무나 쉽게 훼손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을 통해 추구하던 궁극적 가치였던 자유가 어느 순간 수많은 경쟁적인 가치의 하나로 추락해 있다. 그렇다면, 혹시 이런 상황이 단지 권력추구적인 정치나 관료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인간의 인식론적 문제에서 기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연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문제의 제기: 이성과 자유의 상충 위험

1. 자유의 의미

자유롭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간섭이나 자의적 지배를 받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다(토마스홉스, 2012: 176; 임마누엘 칸트, 2007: 179; Locke, 1689: §4, 57, 87;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1997: 29-32; Mill, 1859: 6; Carter, 2012: 1). 자신의 생각과 신념에 따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는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Carter, 2012: 3). 인간의 이성의 능력을 인정한다면, 자유에 대한 제약은 이성의 능력을 사실상 부인하는 것이다(임마누엘 칸트, 2007: 179).

하이에크의 설명에 따르면 자유란 강제와 부재 즉 사회에서 타인에 의한 강제가 가능한 줄어든 인간 상황이다(하이에크, 1997: 29-32). 정부의 역할 역시 강제와 그것의 해로운 효과를 제거하여 최소화하는 것이다(하이에크, 1997: 31). 주의해야 할 점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권력으로 정의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하이에크, 1997: 39). 이런 의미의 자유는 자유의 이름 아래 개개인의 자유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하이에크, 1997: 41). 자유란 간섭과 통제의 부재를 의미할 뿐, 개인의 행복까지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즉 자유롭지만 대신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비참할 수도 있다(하이에크, 1997: 43).

공화주의자들에 의하면 자유는 자의적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즉 지배의 부재(Non-Domination)를 의미한다(Lovett, 2017: 2-6). 역사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가장 강력히 억압한 것은 정부와 정치다. 정부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다면 이미 자유롭지 않다. 또 자의적 권력을 가진 독재적 정부뿐 아니라 일부의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구성원에 대해 자의적인 통제력이나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을 획득할 때도 자유에 대한 위협은 발생한다(Lovett, 2017: 21-22). 공화주의자들은 자의적 침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법치시스템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러나 법 역시 다수에 의한 횡포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정부의 재정이나 정부가 보유한 정보의 증가 역시 자의적 권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아무리 정교하게 법을 제정해도 관료의 재량권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Lovett, 2017: 24).

2. 위해의 원칙(harm principle)

누군가의 자유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자기 방어(self-protection)다. 즉 누군가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누군가에게 위해(harm)가 발생할 경우에만 행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Mill, 1869: 13). 그렇게 하는 것이 그를 위하여 도움이 될 것이거나, 그를 더 행복하게 할 것이라든가 또는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아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밀, 1998: 247).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으려 하지 않는 한, 또는 행복을 얻으려는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는 한,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밀, 1998: 251).

가부장적인 입장에서 상대의 이익을 위해 상대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가부장적 제약, paternalistic restriction), 상대가 도덕적으로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 자유를 제약하는 것(도덕적 제약, moralistic restriction)도 정당화될 수 없다(Blink, 2016: 43). 가부장적인 정부에서도 권력은 남용되고 정치인은 부패하여 자기이익 추구하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시민의 자유에 대한 제약을 가할 수 있다. 선한 통치자라도 시민의 이익에 대해 잘못 규정할 수 있다. 비도덕적 행동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Blink, 2016: 63, 67).¹⁾

3. 이성²⁾의 한계로 자유가 훼손될 위험

1) 정부와 정책의 차원

일상의 삶과 학문과 정치를 위해 의지하는 이성은 다양한 경로로 개인의 자유에 대해

1) 한편, 밀은 공리(utility)가 일체의 윤리적 문제의 궁극적 판정기준이라고 주장한다(밀, 1998: 248). 그러나 공리주의를 적용하면 피해기준에 의한 자유의 보호는 어려워진다(Blink, 2016: 44). '공리'라는 것이 매우 애매한 개념이며 객관적 추정이 어렵다. 결과적으로 공리를 앞세운 정치인과 관료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자유의 훼손을 정당화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학문이 억압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위험 역시 공리주의적인 현상의 단순화에서 기원한다. 관료에게는 억압의 논리를 제공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현실의 치절하고 다양한 실상을 은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분석을 위해 동원하는 개념의 본질적 속성이기 때문이다(사공영호, 2019: 9-16).

2) 지각, 사고, 판단, 추론, 해석, 통찰, 선험적 의식, 마음 등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전통서양철학과 현상학을 포함한 현대철학, 심리학, 인지과학, 신경과학 등이 공통된 연구의 주제로 삼고 있는 인간 특유의 정신 능력을 의미한다.

부당한 제약을 촉발하고 정당화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제도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자유와 이성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는 비공식제도의 토대 위에서 공식제도를 수립하여 서로가 상호조화를 이룰 때다(North, 1990, 2006). 구성원 공통의 믿음과 삶의 양식을 제도화했으므로 공식제도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훼손될 위험이 덜하다. 가령, 미국이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법과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가 이를 뒷받침하는 질서의 근간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새뮤얼 헌팅턴, 2006; Bellah et al., 1996). 사회구성원들이 어떤 이념을 공유한다면 이 역시 자유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를 고안하려는 이성적인 노력은 구성원 공통의 가치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와 자유는 일종의 영원한 딜레마 관계에 있다(eternal dilemma of democratic government, Anderson & Hill, 1979: 10). 정치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치란 본래부터 이해관계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따라서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쉽지 않다. 애초부터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정치과정에서 자유에 대한 논의가 공정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과정을 거쳐 자유의 의미와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결국 정치인과 관료가 특정 이익집단이나 이념집단의 포로가 되고(Stigler, 1975), 정책은 지대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이 일어난다(Hayek, 1982: 26). 결과적으로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누군가의 경제적 자유와 기회가 억압하는 일이 일어난다. 월다브스키가 지적한 것처럼 결국 각 개인은 운 좋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Wildavsky, 1987: 125; 최병선, 2015: 87-88, 재인용).

애로(Kenneth J. Arrow)의 불가능성 정리에 의하면 모든 법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침해를 내포하고 있다. 이미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다양하고 경쟁적이라면 이런 국민들의 요구를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복지함수 즉 의사결정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이정전, 2005: 196-205).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결정을 내리면 월다브스키의 주장처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즉, 대의민주주의라는 의사결정의 방법 자체가 이미 개인의 자유를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훼손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밀은 민주주의에서 정말 위험한 자유에 대한 제약은 다수에 의한 독재라 지적하고 있다(Brink, 2016: 42).

2) 학문 및 사상의 차원

학문과 사상은 인간의 이성의 능력이 가장 깊고 진지하게 펼쳐지는 영역이다. 정책결

정과 정치 역시 학문과 사상과 이론과 분석에 크게 의지하는 시대가 되었다. 아담스미스의 사상이 자유방임적 경찰국가의 이론적 토대가 되고, 하이에크의 사상은 레이건과 대처의 신자유주의 규제개혁의 토대가 되었다. 공산주의 혁명의 토대 역시 계급갈등에 대한 칼 맑스의 역사연구에 기초하고 있다. 롤스의 정의론은 분배적 정의에 기초한 정부개입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학문이 이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정부에 의한 억압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우선, 연구자들은 자기학문의 성격과 한계에 대해 오해할 수 있다. 니체(Nietzsche, 1968: 336, §586; Hales et al., 2000), 퍼스(찰스 샌더스 퍼스, 2008: 256- 273), 로티(Rorty, 1979, 1989), 푸코(Gutting, 2014)등에 의하면 사회과학은 지도나 거울처럼 사회현상의 모습을 축소하여 그대로 보여주는 도구가 되지 못한다.³⁾ 어떤 전제를 도입하고 어떤 측면을 어떤 관점에서 분석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경쟁적인 해석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자기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연구자는 경쟁이론의 가치를 이해할 수 없고, 결국 자기 이론의 가치에 대해서도 오해하기 쉽다. 사회구성원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성과 일반성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오해할 수 있다. 법제화될 경우 상당한 고통과 억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과소평가할 수도 있다.

지식이 얇은 도구가 아니라 권력과 통제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가령 연구자가 제공하는 이론과 개념이 정책편의를 위한 관찰이나 정보의 획득, 표준화된 행동 지침의 부과, 획일적 기준에 의한 검사와 평가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면 이는 결국 정부에 의한 통제와 억압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푸코에 의하면 현대 정부가 시민과 사회를 통제하는 방법은 과거와 같은 고통스러운 처벌이 아니다. 단지 관찰하고 검사하고 기준을 수립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판옵티콘처럼 정부가 원하는 통제를 가할 수 있다(Foucault, 1977: 200-205). 자료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수량화된 기준을 만들고 지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개인이나 조직은 각각의 고유성은 상실한 채 하나의 사례로 전락한다. 자기능력에 기초한 판단의 주체에서 통계적 기준으로 분류되는 하나의 사실적 단위로 전락한다. 이런 점에서 권력과 지식의 관계는 매우 가깝다. 지식이 통제의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정치와 정책의 영역이다.

연구와 분석을 위해 동원하는 개념의 특성을 오해할 때도 학문이 정부에 의한 자의적

3) 니체는 우리가 관찰하는 세계는 그 자체로의 세계가 아니며 사실상 관점에 따라 창조된 세계라고 비판하고 있다. 분석철학자인 퍼스는 연구의 목적은 참된 의견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의 정착 즉 믿음의 확인이라 설명하고 있다. 로티는 언어가 세계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없으며, 연구자가 취하는 사상 및 이론적 입장 역시 그것이 사실을 공정하게 비추기 때문이 아니라 우연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푸코는 학문은 매우 우연한 결과물이며, 심지어 특정집단의 이익을 반영한 것일 수 있음을 주장한다.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개념화된 언어는 현상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특정 부분을 잘라내는 수단으로 작용한다(구연상, 2011: 22-29; Braver, 2012: 107; Brunner 1991: 66-69).⁴⁾ 특히 정책분석가가 정책문제를 다루기 쉬운 문제로 단순화하기 위해 특정 부분을 제외하면 개념은 이미 실제문제가 아니라 왜곡된 문제를 다루는 결과가 발생한다(analytical errors, Brunner 1991: 66-69). 게다가 이런 개념에 기초하여 현상을 수량화하면 마치 대상에 대한 객관적 서술이 가능하고, 이에 기초해 합리적인 통제가 가능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개념화된 언어다(Espeland & Sauder, 2007: 20).

현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연구자에게 주어진 신성한 의무다. 이런 임무를 감당하려면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사상과 이론과 연구방법과 개념의 작동원리와 더불어 이의 인식론적 한계에 대한 냉정한 통찰에 기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방어와 위해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는 억압적인 정책을 정책연구자들의 연구가 오히려 뒷받침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학평가에서처럼 구체적 피해가 없는 자율적 교육서비스임에도, 연구를 위한 이론화·개념화과정에서 학문이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다양성·개별성을 은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연구는 관료의 권력과 상당한 고통을 가하는 억압적인 정책의 근거가 되기 쉽다. 학문의 실패가 정부실패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3) 인지적 차원: 이성과 언어⁵⁾의 작동원리에 무지할 때

자유에 대한 위협은 사회현상의 차원에서는 정부, 정책, 정치, 독재, 획일화된 법규 등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요인에서 기원한다. 그러나 사회현상의 발생적 기원을 고려하면 이런 현상을 움직이는 인간의 이성과 언어의 작동원리와 그 속에 내재된 문제에서

4) 구연상은 하이데거의 철학을 설명하면서, 대상에 대한 물음에는 이미 자신에게 중요하거나 필요한 부분만을 따로 도려내어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냉혹한 욕망'이 자리하고 있으며, 물음거리를 쪼개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의 전체성을 드러낼 수 없다고 지적한다.

5) 이 연구에서 설명하는 언어는 Wittgenstein, Heidegger, Saussure, Rorty, Braver 등 현상학 및 언어철학의 언어에 대한 이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언어는 세계를 비추는 거울처럼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도구가 아니다. 언어의 의미 역시 어휘의 네트워크와 상황과 맥락 속에서 창조된다. 개념화된 언어는 세상의 특정 측면을 특정관점에서 자의적으로 잘라내는 수단일 뿐이다. 사회현상에 대한 인간의 언어적 이해와 사회과학은 특히 이런 위협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언어에 대해 무지할 경우 이에 의지하는 학문과 제도는 현실과의 괴리를 피하기 어렵다. 자유에 대한 억압을 자동적으로 내포할 위험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논의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언어에 대한 논의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친다.

기원한다. 이런 위협을 가장 강하게 경고하는 사람은 하이에크다(Hayek, 1982;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1996, 1997; 민경국, 2007: 120; 황재학, 2011: 149). 이성의 위협에 무지할 때, 헌법에 기초한 민주주의조차도 자유사회의 자생적 질서를 전체주의적 체제로 전락시키는 합법적 억압의 도구가 될 수 있다(Hayek, 1982: 2-3).

이성이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성에 의지하여 한편으로는 질서를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오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위적인 설계 없이 만들어진 질서와 사회세계의 작동방식을 과소평가할 때다(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1996: 28). 서구사회의 변형을 가능하게 한 소유권과 계약에 기초한 질서는 인위적 설계의 결과물이 아니다(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1996: 38). 게다가 제도의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이성 역시 사회와 환경의 영향 속에 형성되어 일정한 도덕적 기반 위에서 작동한다(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1996: 52). 공정하게 작동한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이성이 실증주의, 공리주의, 합리주의, 경험주의 등의 지성적 교육을 접하면서 이성에 의해 원하는 사회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설계주의적 사고에 빠져든다(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1996: 124; 신중섭, 2006: 92-93).

하이에크는 이런 생각을 이성의 한계에 무지한 ‘치명적 자만’이라 비판한다(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1996: 62). 이런 이성적 오만의 기원으로 하이에크는 데카르트에서 기원하는 이원론을 지적한다(민경국, 2007: 120). 즉 이성과 세계가 분리되어 있고, 이성이 세계에 대한 객관적 관찰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철학적 인식론이 이성에 대한 오만의 기원이라는 것이다(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1996: 104).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정책의 설계자가 일상의 삶에 흠어져 있는 정보와 지식을 온전히 이용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항상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Hayek, 1982: 31-32;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1996: 151-154). 이런 이성의 한계에 무지할 경우 이성에 의지하여 세계에 관한 공정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이 지식에 기초하여 사회를 설계하고 디자인할 수 있다는 “구성적 합리주의(constructivist rationalism)”에 빠진다(민경국, 2007: 121; 황재학, 2011). 하이에크가 보기에 공산주의와 케인즈의 이론은 구성적 합리주의의 전형이다(황재학, 2011: 148).

하이에크는 언어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한다. ‘자본주의’라는 표현은 현상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을 내포하고 있다. 반면, ‘사회’, ‘사회정의’와 같은 개념은 이를 추구할 때 발생하는 문제와는 정반대로 긍정적인 의미를 암시하면서 사람들을 의미론적으로 기만한다고 비판하고 있다(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1996: 206-225, 1997: 139-145). 특히 ‘사회정의’와 같은 개념은 사회주의적인 개념으로 사실상 명확한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

이 아님에도 이를 추구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권력기구를 만들고 개인을 권력에 예속시켜 개인의 자유를 파괴한다고 비판하고 있다(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1997: 145-149; Nozick, 2013: 32-33).⁶⁾

노직(Robert Nozick)은 공리주의를 유용성 괴물(utility monster)이라 칭하면서, 유용성의 총량의 증가를 위해 우리 모두가 이 괴물의 아가리 앞에 희생될 것을 요구한다고 비판하고 있다(로버트 노직, 2016: 67). 정치와 이념과 공리주의적 학문이 자유를 잡아먹는 괴물이 될 위험은 인간 사고와 언어의 한계에서 기원한다. 정치 현상에서는 인간 사고와 언어의 허구성과 자의성을 통제하는 쉽지 않고, 이런 어려움은 이성과 언어에 의지해야 하는 학문적 판단에서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4. 새로운 접근의 모색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첫째, 정치, 제도, 문화, 학문 등 역사적·사회적 형성물과 여전히 연구의 대상인 인간 사고와 언어에 의지하여 형성되는 합작물이다. 사회 속에서 함께 형성해야 하고, 정치를 통해 형성해야 하고, 제도의 틀 속에서 작동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사고와 언어의 작동방식 그리고 이에 의지해서 이뤄지는 학문 활동에도 의지하여 이뤄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이 자유를 억압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만큼 자유로운 질서체계를 형성하는 것은 어렵다. 사실상 인간이 현상의 이해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이 자유에 대해서만큼은 심각한 위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학문뿐 아니라 이성과 언어까지도 자유에 대한 억압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사뭇 ‘섬뜩한’ 경고가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와 정치와 법과 정책 모두 결국은 우리의 생각과 언어에 의지해 작동한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언어는 생존과 삶의 유익을 위해 진화되어 왔다. 진리와 공정한 지식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공정하게 작동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 신뢰할 수 있는 학문의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 정치와 제도 역시 설사 외형적으로는 민주적인 양상을 보일지라도 실상은 불합리한 억압의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다.

셋째, 외형적으로는 민주적인 것 같고 공리주의적인 판단처럼 보이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은연중에 유토피아적이고 전체주의적이며 이념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정치

6) 노직 역시 개인이 있을 뿐이며 자신의 선을 위해 고통을 감수하는 사회와 같은 실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이익을 추구할 경우 결과적으로는 어떤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이익을 희생할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권력이 창출되고 규제가 제도화되고 있는 것이 분명 인류의 역사이고 우리의 현실이다 (Popper, 1994). 화려한 공약을 제시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규제를 양산하고 시민의 삶은 훨씬 곤궁하게 만드는 정책이 지금 우리 앞에서도 펼쳐지고 있다.

이 연구의 입장에서 보면, 자유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연구와 통찰을 제시하고 있는 하이에크다. 그러나 하이에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연구자들은 구성적 합리주의적인 정책 제안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언어의 의미론적 위험에 대한 경고 역시 현실의 정책과 정치에서는 거의 무시되고 있다. 사회현상에 대한 이론적 연구의 한계 역시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세상을 바꿔보려는 ‘순진한’ 시도가 난무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하이에크는 이성과 언어라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에 도달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현대 철학과 언어철학 그리고 인지신경과학의 도움을 받지는 못했다. 그래서 구성적 합리주의와 언어의 위험을 경고하면서도 왜 인간이 이런 판단에 빠지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었다. 데카르트적 합리주의가 인식론적 문제의 근원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는 있었다(민경국, 2007: 120). 그러나 소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말할 때, 이 생각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며 어떤 위험이 내재되어 있고 어떻게 한편으로는 ‘구성적’이면서 동시에 ‘합리적’이라는 적어도 사회현상의 차원에서는 자당착적이고 허구적인 판단에 도달하는지를 설명할 수는 없었다.

이 연구는 하이에크 연구의 마지노선이 되고 있는 이성과 언어의 문제를 인지신경과학의 인식론에 기초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정치가 유토피아적인 판단에 빠지는 것은 1차적으로는 득표를 위해 추상적인 공약을 제시해야 하는 선거제도에서 기원한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언어에 의지하지만 경제적 판단에서와는 달리 정치적 판단에서는 언어적 서술의 허구성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인식론적 문제와 인지신경적인 문제에서 기원한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관점에서 보면, 자유는 정치와 제도의 결과물이면서 동시에 석기시대적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인간 사고와 언어 그리고 신경시스템의 산물이다(Anderson, 2001; Cosmides et al., 1997: 15-16). 먼저 이성의 작동원리와 그 속에 내재된 인식론적 위험에 대해 인지신경과학의 설명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어서 자유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이성의 약점에 의해 자유가 부당하게 제약될 위험과 자의적 지배의 견제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Ⅲ. 이성의 작동원리와 한계: 신경과학적 측면을 중심으로⁷⁾

1. 인간 이성의 물리적 한계

과연 인간의 이성은 자유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나 자의적인 지배를 분별하고 견제해 낼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고 있을까? 세상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최선의 해법을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방법으로 선별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우선, 인간의 인지구조가 이런 인식이 가능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화신경과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인간의 인지시스템은 삶의 유용성과 생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화된 장치다(Clark, 2016: 177-180; Pinker, 1989: 561). 본래부터 해석을 위한 장치일 뿐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인지할 수 있는 여건에 있지 않다. 게다가 실천적 유용성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인지의 방식이 인간의 생존에는 오히려 불리하다(Mark et al., 2010; Hoffman et al., 2014). 또한 지식을 얻기 위해 탈맥락적인 방식으로 개념을 형성하고 사고하는 방법은 석기시대 신경시스템의 유산이며, 모든 것이 얽혀 있는 현대의 사회 현상을 다루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신경과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Anderson, 2001; Cosmides et al., 1997: 15-16).

인간 이성의 한계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물리적 여건이다. 시각의 중추인 뇌는 두개골 안 ‘어두운 방(dark room)’에 자리하고 있다(Dennett, 1991: 5). 세계와 직접 접하여 세계를 지각할 수 있는 여건에 있지 않다. 신생아는 천억개의 신경세포를 보유하고 있으나 탄생 당시에는 전혀 지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Travis, 2015: 18). 마치 조립되지 않은 채 배달된 컴퓨터부품처럼 전혀 작동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 철저하게 경험에 의지하여 자극의 원인에 대한 추론능력을 발전시킨다. 경험은 마치 컴퓨터의 프로그래머(blind programmer)처럼 인간의 신경회로를 조형한다(Pinker, 1989: 176; Costandi, 2016: 43-44; Travis, 2015). 그러나 아무리 정교하게 발전시켜도 이는 어디까지나 생존을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다. 세상이 내가 지각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동일한 방식으로 세계를 보는 것은 세계가 그런 방식으로 있기 때문이 아니라 동일한 해석과 추론의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일 뿐이다(Hoffman, 1998: 74).

7) 인간 이성의 작동원리와 한계에 관한 현상학과 언어철학의 설명은 사공영호의 다른 연구(2015a; 2015b; 2017; 2018; 2019)를 참고할 수 있음.

2. 이성의 작동원리: 맥락의존적 추론과 해석

1) 추론의 의미

신경시스템의 역할은 어두운 방에서 전기화학신호로 주어진 외부자극의 원인을 추리하는 것이다. 자극이 주어진 원인세계의 모습을 추정하는 것이다. 신경시스템이 이용할 수 있는 자극은 5감에 주어진 자극과 자신의 몸의 움직임에 관한 신경적 정보뿐이다. 이 자극과 정보에 기초하여 외부세계의 모습을 추론해야 한다.

‘추론’한다는 것은 주어진 자료로부터 그 자체만으로는 알 수 없는 어떤 지각, 인식, 판단에 추측하여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론은 여러 차원에서 일어난다. 우선 부분에서 전체로의 추론이 일어난다. 카네만이 설명하는 대표성 휴리스틱스는 이런 특성을 잘 보여준다(Kahneman, 2011). 피카소와 살바도르달리의 초현실적인 그림을 보고도 얼굴이나 시계로 지각하는 것은 대표적 특징을 중심으로 추론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지각의 방식은 인식론적 측면이나 신경시스템적으로도 불가피하다. 우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은 항상 대상 또는 현상의 부분이다. 게다가 인간이 접할 수 있는 대상의 전체적인 양상은 계속 변한다. 그나마 안정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이 부분이다. 가령, 사람의 표정은 계속 변해도 그의 눈과 코와 입이 가진 부분적 특성은 비교적 안정적이다(Hoffman, 1998: 82-83). 우리의 신경시스템도 부분별로 전문화되어 있다. 인간의 뇌는 통합구조물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 스스로 활동하는 전문화된 모듈의 집합이다(마이클 S. 가자니가, 2009: 196; Hoffman, 1998: 178). 각 모듈은 별도로 계산을 수행한다. 대상에 대한 지각은 색과 윤곽과 운동의 종합이다(Hoffman, 1998: 47). 무엇으로 지각하려면 부분에서 수행한 해석작업으로부터 결론적 해석을 추론해야 한다. 신경시스템이 손상되면 정상적인 추론작업이 일어나지 않는다(마이클 S. 가자니가, 2009: 196-8; Hoffman, 1998: 48).

미래예측적인 추론도 일어난다. 신경과학자들에 의하면 우리의 뇌는 주어진 자극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장치가 아니라 주어질 자료를 적극적으로 미리 예측하여 선별적으로 투입될 자극을 취하고 해석하는 장치다(Clark, 2015, 2016; Hohwy, 2013; Jos et al., 2010; Seth, 2014).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는 쏟아지는 자극의 홍수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음악을 들을 때는 주어질 음을 예상한다. 그래서 멜로디의 흐름을 벗어난 음은 이상하게 들린다.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소음 속에서도 내가 알고 있는 노래는 잘 들린다. 사회학자들이 실시한 규칙위반실험은 상대의 반응과 행동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 밖의 행동을 접하면 당황하고 분노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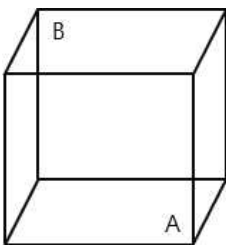
(Garfinkel, 1967: 42-44). 클라크는 시각자료를 접할 때 이미 망막의 단계에서부터 자료에 대한 예측과 추출이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Clark, 2016: 28).

2) 해석규칙과 맥락에 의지한 추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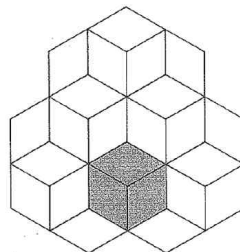
추론은 투입된 자극 자체에서는 얻을 수 없는 원인 세계에 대한 지각을 목표로 한다. 투입된 자극 이상의 지식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항상 자의적인 추론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인간의 인지신경시스템이 택하고 있는 것이 해석규칙의 수립과 맥락에 대한 고려다. 해석규칙이란 투입된 자료가 특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어떤 것'인 것으로 지각하도록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을 의미한다. 가령, 평면과 공, 큐빅과 같은 입체물은 시각자극에서 규칙적인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이런 자료의 차이와 특성에 기초하여 어떤 특성을 가진 자료는 공이거나 또는 큐빅인 것으로 해석하는 규칙을 수립할 수 있다. 가령, 호프만은 인간이 시각자료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35가지의 해석규칙을 설명하고 있다(Hoffman, 1998). 인간이 외부세계를 동일한 방식으로 지각하는 것은 해석규칙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일 뿐이다(Hoffman, 1998: 74). 그래서 우리가 지각한 방식으로 세계가 있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자의적 추론을 견제하기 위해 인간이 의지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자료와 함께 주어지는 맥락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림 1> 네커큐브를 보자. 이 자료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은 4가지다. 첫째, 선분집합, 둘째, 7개의 평면집합, 셋째, A면이 정면인 큐브, 넷째, B면이 정면인 큐브. 그러나 현재 주어진 자료 자체만으로는 이 큐브가 실제 어떤 모습인지 알 방법이 없다. 이것을 3차원 큐브로 보는 것은 이미 일반관점규칙이라는 해석규칙을 무의식적으로 적용하여 추론한 결과다(Hoffman, 1998: 24-26; Albert & Hoffman, 2000: 303). 그러나 실제의 상황에서는 오직 이런 큐브만 주어질 수 없다. 어떤 것이든 다른 자료와 함께 주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 주어지는 자료를 참고하

<그림 1>네커큐브



<그림 2> 큐브 집합



여 4가지 해석의 방법 중 하나를 취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는 추론을 감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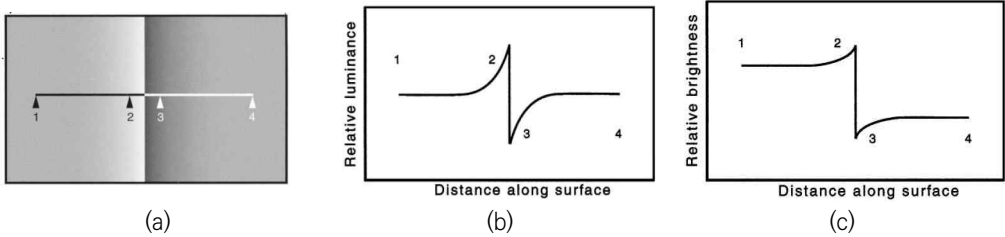
〈그림 2〉의 큐브집합을 보자. 엄밀히 말하면, 이 자료 역시 3차원 큐브집합이라는 보장은 없다. 다만, 주변의 자료들을 참고하여 음영이 주어진 대상 역시 큐브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한다. 이렇게 주변의 자료를 이용하더라도 이 큐브는 위를 향한 큐브일 수도 있고, 앞을 향한 큐브의 외적 공간에 불과할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단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자극만을 이용하기보다는 주변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해석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훨씬 유리하다.

인간의 행동이나 언어를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다. 행동 자체, 언어 자체만으로는 의미를 추론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손으로 문고리를 잡은 이유가 문을 닫고 나가기 위한 것인지 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한 것인지를 알 방법이 없다. 앞뒤의 행동을 참고해야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이 무례한 것인지 단순한 실수인지 그 자체만으로는 알 수 없다. 어떤 윤리적 기준을 동원해야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추론할 수 있다.

3. 맥락과 해석규칙에 의한 실재의 창조

〈그림 3〉을 보자. 그림 (a)에서 왼쪽 면은 오른쪽 면보다 밝게 보인다. 물리적 밝기는 (b)와 같이 동일하다. 그런데 우리가 지각한 밝기는 (c)와 같다. 그런데 이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양쪽 면의 가운데 위치하여 불룩하게(또는 오목하게) 보이는 영역 때문이다. 이 부분을 가리면 두 영역의 밝기는 같게 보인다(Purves et al., 1999: 8544). 맥락의 역할은 이런 것이다. 양쪽 면의 밝기를 비교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 주어진 정보를 자동적으로 고려한다. 그런데 이로 인해 실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현상을 이해하는 일이 발생한다. 즉 우리가 인지한 모습이 물리적인 상태와 괴리되는 일이 일어난다. 주어진 자극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함께 주어진 자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이용하는 정보가 실재의 모습에 대한 해석을 바꿔놓는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처럼 세계와 전혀 다른 모습이 세계의 실재모습이라 믿는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지각된 세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함께 주어지는 자료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지방식이 한편으로는 세상에 대해 보다 정확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에 대한 공정한 이해를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다.

〈그림 3〉 콘스위트 착시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의 차이 역시 바로 이런 원리로 발생한다. 어떤 측면을 동원하여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현상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다. 가령, 최저임금, 근로시간,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성매매, 수도권, 대기업 등의 현상에 관한 이해가 서로 달라지는 것은 대상 현상자체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동원하는 이론과 사상과 이념과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4. ‘객관성’ 환상과 믿음

1) 신경적 차원

현대철학이나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이성은 ‘세계’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식을 얻기 위한 장치라는 생각은 너무나 순진하고 비과학적이다. 인간은 지식에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지해 살아간다. 실증적인 지식을 얻으려는 엄밀한 연구의 방법도 인간이 의지하고 있는 인지의 기본적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다. 신경시스템의 물리적 한계와 작동원리에 비춰보면, 창밖의 세상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조차도 지각이라기보다는 ‘가상현실’이라 설명하고 있다(Hoffman, 2003; Hoffman et al., 2011: 1).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세계가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종의 ‘믿음’이라는 것이 신경과학자들의 설명이다.

우선 신경적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지한 세계의 모습은 감각기관에 ‘투입된 자료’에 근거해서는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믿음이다. 신경과학자들은 ‘불가역성 문제(inverse problem)’라 부르고 있다. 주어진 감각자료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은 무한하기 때문에 감각자료만으로는 원인이 되는 세계의 모습을 돌이켜 판단하는 것

8) 호프만은 양자역학, 진화생물학, 신경과학, 유전자알고리즘이론 등에 기초하여 및 우리가 지각한 세계의 모습은 실은 실제의 세계의 모습을 숨기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비유하자면, 컴퓨터모니터의 ‘아이콘’ 즉 하나의 ‘인터페이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inverse)이 쉽지 않다(Hohwy, 2017b: 5; Hoffman, 1998: 13-14). 가령 우리의 망막에 주어진 자료의 형태는 이차원이다. 하지만 우리는 3차원의 세계를 경험한다. 그런데 2차원자료에 기초하여 3차원의 원인세계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령, 단순한 '직선' 모양의 어떤 사물을 봤다고 가정해보자. 주어진 자료만으로 이 대상이 직선의 모양인지 알 수 없다.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직선의 모양을 하고 있었으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자와 같이 보이는 어떤 것을 봤다고 하자. 그렇다면 대상은 의자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의자의 모양처럼 선분의 집합이 보이도록 하는 방법은 사실상 무한대이기 때문이다(Pizlo, 2018).

투입되는 자료의 애매성과 가변성으로 인해 세계에 대한 안정적 지각이 불가능하다는 해부학 및 신경과학적 한계 역시 믿음을 불가피하게 한다. 우리는 우리의 망막이 카메라의 필름처럼 세계의 모습을 감지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전혀 이런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우선 빛이 망막의 수용기에 도달하려면 그 앞에 있는 혈관과 시신경을 통과해야 한다. 혈관과 시신경은 투명에 가깝지만 빛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친다(Noe, 2004: 37). 초점부위에서 많은 정보를 얻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끊임없이 초점을 이동하며 대상을 관찰한다. 1초에도 몇차례 초점을 옮기는 단속운동(saccadic eye movement)을 한다. 단속운동으로 눈의 초점은 초음속으로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이 때 우리 망막에 비친 세계의 모습은 흐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우리는 지각하지 못한다. 또한 우리 눈은 맹점(blind spot)도 가지고 있다. 시신경이 뇌로 연결되는 부분에는 망막이 배치될 수 없고, 이 부분에서는 외부자극을 수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역시 우리는 인지하지 못한다. 아무리 촘촘하게 배치되도 망막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시신경의 집합이다. 설사 직선이 주어져도 우리의 시신경은 직선의 형태를 정확히 반영하여 활성화될 수 없는 구조다(O'regan, 2011: 13; Hoffman, 1998: 67).

또 망막에 비친 상은 수정체에 의한 빛의 굴절로 상하가 거꾸로 뒤집어져 있다. 우리가 지각하는 것처럼 바로 서 있지 않다. 망막에 주어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지 않다. 망막에 주어지는 정보의 양은 10^9 bits/초다. 하지만, 시신경이 전달할 수 있는 것은 10^7 bits/초, 우리 뇌가 최종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10^2 bits/초에 불과하다. 장편소설에 해당하는 정보를 받지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두 문장 정도다. 99%가 사라진다(Zhaoping, 2014: 10). 이런 이유로 오리간은 인간의 시각장치는 '재앙적'이라 말하고 있다(O'regan, 1992: 463; 2011: 3-33). 우리의 눈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세상의 모습을 안정적으로 인지해낼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9)

이와 같은 신경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세상의 모습을 감각자료로 사실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결국 애매하고 가변적이고 불안정하고 부분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추론하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된 결과가 아무리 결함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믿음' 밖에 없다. 어차피 세계의 실상을 알아낸다는 보장은 없고, 더 잘 알아내는 것도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판단을 하지 않고는 행동하고 대응하여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그렇게 믿는 방법뿐이다. 그래서 신경과학자들은 아무리 생생하게 느껴져도 우리의 경험은 세계에 대한 직접적 경험이 아니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라 설명한다(Noe, 2004: 55). 신경시스템의 추론과 해석과 구성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의 '통제된 환상(controlled hallucination)'이라는 것이다(Clark, 2016: 14, 109; Frith, 2007: 109-111; Lamme, 2015: 11; Noe, 2004: 55; Seth, 2017).

그러나 이런 믿음은 일종의 자기기만이다. 경험의 사실성, 실재성을 보장할 수 없음에도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하여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도록 신경시스템은 작동하기 때문이다.

2) 언어적 차원

언어 역시 세계에 대한 해석을 형성하고 해석의 배경이 되는 인공적인 맥락을 형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세계에 대한 믿음을 형성하는 도구다.

과학의 전제조건은 언어가 세계에 대한 서술의 수단이라는 것이다. 서양 전통철학 역시 이렇게 생각해 왔다(Wittgenstein, 1953: §1). 언어는 세계와의 대응관계에서 의미를 얻고, 이런 언어에 기초하여 대응적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언어철학에서 무너졌고, 현대 언어철학에서는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현대 언어철학에서 언어의 기반은 언어 밖의 대상이 아니라 언어의 네트워크다(남경희, 2012: 98; Noe, 2012: 3; Wittgenstein, 1953: §43, 108; 토마스 S. 쿤, 1992: 77).

인간은 언어를 도구로 삼아 새로운 해석의 세계를 창조한다(Heidegger, 1979). 예를 들면, 그리스인과 청교도들은 언어를 매개로 한 새로운 해석의 세계를 창조했다. 어떤 망치가 좋은 망치인지는 작업의 상황과 이용자의 조건이 정하듯, 언어의 의미 역시 발언의 환경과 맥락과 해석자의 해석 속에서 의미를 얻는다. 상황에 의지한 네커큐브의 해석

9) 우리가 듣는 언어의 어휘 역시 우리가 듣는 것처럼 정확하고 분절적인 음가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가 그렇게 듣기 때문에 그렇게 들린다(Saffran, 2001).

과 동일한 방식이다. 그래서 상황을 공유하고 배경을 공유하고 삶의 양식을 공유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언어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이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소통의 수단이 되지 못한다(Rorty, 1989: 3-22; Wittgenstein, 1969: §166, 174-175).¹⁰⁾ 경쟁적 해석을 기각하고 특정한 해석을 선택하고 ‘맹목적으로’ 추종한다는 점에서 언어에 의해 창조된 해석은 일종의 믿음이다(Wittgenstein, 1953: §219).¹¹⁾

심리학자들과 신경과학자들은 의미의 자의성에 대한 현대 언어철학의 설명을 뒷받침하고 있다. 우선 언어는 사고가 이뤄질 개념적 공간과 맥락을 인공적으로 창조한다(Lupyan et al., 2015: 282, Lupyan & Bergen, 2016: 4).¹²⁾ 언어에 의해 지각영역이 창조되며, 인식의 대상이 되는 문제영역이 재구조화된다(Clark, 2011: 45-47). 이와 같은 인공적 사고 영역의 창조는 언어가 세계가 아니라 세계에 대한 인위적으로 ‘분류(category)’에 기초하여 ‘탈맥락화’와 맥락의존·상황의존적인 방식으로 의미를 형성하는 데서 기원한다.

또한 언어는 인간의 뇌를 프로그래밍하는 수단이다. 프로그램은 지시된 작업을 자동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장치다. 그런데 언어가 우리의 신경시스템이 인지과 해석의 작업을 자동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매체로 작용한다(Lupyan & Bergen, 2016). 원숭이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는 것은 지극히 오랜 시간이 요구된다. 그러나 언어를 이용하여 인간에게 어떤 행동방식이나 인지의 방식을 교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언어를 이용해 같고 다름을 구별할 수 있는 인위적 기준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이렇게 프로그래밍에 동원된 언어는 인간의 기억과 회상과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단초로 작용한다(Casasanto et al., 2015). 루피앙과 클라크는 인지신경시스템에서 언어가 가장 최상위의 추상화·분류화의 역할을 담당하며, 이렇게 형성된 언어가 하위 감각지각 단계에서의 지각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Lupyan & Clark, 2015: 280).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보는 것까지 제어할 수 있다(Lupyan & Clark, 2015: 279). 그래서 단지 바나나라는 이유로 실제보다 노랗게 보는 문제가 발생한다. 재벌이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자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작동할 수 있다.

언어 역시 매우 자기기만적으로 작동한다. 언어적 해석의 틀에 익숙해지면, 자신이 사

10) 로티는 프랑크스대혁명으로 인해 정의의 의미는 하루아침에 달라졌으며, 이때 정의의 의미는 그들만의 자의적 의미라 설명하고 있다.

11) 비트겐슈타인이 ‘맹목적’으로 추종한다고 설명에 대해 블루어는 현상학과 신경과학의 설명처럼 습관적,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의식의 작동방식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Bloor, 1997).

12) 루피앙은 언어가 사고와 인지작업의 인공적 맥락(artificial context)라 설명하고 있다.

용하고 있는 개념은 마치 안정적인 의미를 가진 것 같은 환상에 빠지게 만든다(Conceptual Change Blindness, Casasanto et al., 2015: 559).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이해 역시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창조한 인공적인 사고의 맥락과 자동화된 프로그램처럼 작동하는 신경시스템이 만들어낸 ‘허구(fictions)’다(Casasanto et al., 2015: 544). 마치 안정적 의미를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지극히 ‘임시적(ad hoc)’이다. 그럼에도 이런 언어와 해석의 방식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는 독단적인 판단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된다(Clark, 1997: 567). 사고의 수단으로 채택한 언어에 오히려 인간의 이성이 포로가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Verweij, 2015: 4).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못한다.

3) 논리적 차원

논리적 측면에서도 인간의 이성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는 세계에 관한 검증된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다. 연구자는 서술의 주어가 되는 현상을 분석하여 해당 현상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는 분석이 아니라 가설의 전제로 작용하고 있는 수많은 사전적 전제와 지식과 이론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Stanford, 2013: §2).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지식의 획득이 아니라 내 믿음을 견고히 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찰스 샌더스 퍼스, 2008: 256- 273).

이와 같은 논리적 결함은 1차적으로는 존재론적 문제에서 기원한다. 만일 관찰이 가능한 방식으로 인간의 인식과는 상관없이 세계가 안정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일정한 규칙 속에서 작동하고 있고, 언어적 서술이 가능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지식의 획득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 자체가 너무나 가변적이고 창조적이며 임시적이고 관찰이 곤란한 변수를 내포하고 있다면 관찰과 분석의 방법을 통해 지식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어떤 서술도 옳거나 틀린 것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결정불충분(under-determination)의 상황에 놓인다(Braver, 2007: 19-21; Glanzberg, 2014: 27). 사회세계의 가변성, 창조성, 자의성, 다양성으로 인해 일반성과 보편성이 높은 지식의 획득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학습과 판단은 과잉가설(over-hypothesis)에 따른 추론의 방식으로 진행된다(Kemp et al., 2007: 307-308; Hohwy, 2017a: 1-2). 부분적으로 경험한 자료에서 추론한 해석규칙을 다른 대상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추론하는 길 뿐이다.

이처럼 명제적 서술이 불가능한 현실 상황의 복잡성을 피하여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전제조건을 도입한다. 이론에 의지하고, 사상에 의지하기도 한다. 어휘가 어휘의

네트워크와 상황 속에서 의미를 얻듯이, 세계에 관한 명제와 지식 역시 이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이론과 지식과 전제와 가정들 속에서 의미를 얻는다. 이런 전제들을 배제하고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명제와 대상 측면만 놓고 보면 마치 실증적인 지식을 얻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배경에 놓인 검증되지 않은 전제를 포함하여 가설이 도출되고 논의되는 전체의 추론과정을 놓고 보면, ‘일정한 조건이 갖춰진다면’을 전제로 한 가설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논리적 일관성에 기초한 추론은 할 수 있다(Putnam, 1981: 49-50). 그러나 이렇게 얻은 지식은 전제가 무너지면 함께 무너진다. 또한 온전한 증거에 기초한 지식이 아니라 나의 전제와 해석이 옳다면 결론도 참일 수 있다는 ‘믿음’이다. 세계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존재하지도 않으며, 내가 가진 지식 역시 세계에 관한 객관적 지식이 아니다.

5. ‘생생한’ 느낌의 표리부동성

인간의 인지신경시스템은 매우 독특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신경적으로나 언어적 및 논리적으로 세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접하고 수용하고 서술해낼 수 있는 여건은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런 인식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추론의 결과물을 ‘생생하게(vividly)’ 경험하도록 작동한다(O’regon, 1992: 463; 2011: 3). 생생한 느낌으로 인해 이 느낌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추론과정과 이 과정의 약점을 의심하지 못하게 만든다. 표리부동하게 작동한다. 추론과 자명, 구체와 추상, 현실과 허구, 환상과 실제, 믿음과 사실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게 만든다. 너무나 생생하여 마치 내가 지각한 것처럼 세계가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 소박한 실재론에 빠지게 만들고(패트리샤 처칠랜드, 2006: 359), 자연적 태도에 빠지게 만들고(Husserl, 1962: §38-39), 객관성 환상에 빠지게 만든다(토머스 길로비치·리 로스, 2015: 25-66). 그러나 아무리 생생하게 느껴져도 두개골이라는 어두운 방에서 주어진 전기신호에 기초하여 추론하고 구성한 환상일 뿐이다.

6. 해석체계의 집단적·사회적 정당화

자연세계를 지각하는 해석규칙은 개인이 스스로 형성할 수 있다. 시행착오 과정을 통해 해석오류를 최소화하는 해석방식을 찾아낼 수 있다(Clark, 2016). 이 해석 규칙 역시 인간의 신체적, 신경적, 지적 해석 조건과 능력의 산물이다. 필요한 자료를 얻고 처리하는 조건과 능력이 달라지면 세계는 전혀 다르게 경험된다. 박쥐가 보는 세계와 우리가

보는 세계가 같을 수는 없다(존 R. 설, 2007: 97).

그런데 언어를 매개로 한 해석의 체계는 집단적·사회적 해석물이며, 이의 정당성 역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얻어진다(K.T. 판, 1989: 103-113). 언어를 배우는 것은 하나의 기술을 습득하고 규칙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관행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의 삶의 형태를 전제로 하고 있어야 가능하다(Wittgenstein, 1953: §199). 물론 삶의 여건이 달라지고 해석의 방식이 달라지면, 행동의 의미도 달라지고 언어의 의미체계 역시 달라진다. 삶의 양식이나 언어적 해석 체계는 인간의 인지나 해석과는 상관없이 존재하는 어떤 기준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집단이 가진 이념과 삶의 양식과 해석체계에 기초하여 자기참조적으로 정당화된(Follesdal, 1994: 140; Searle, 1995: 32). 따라서 집단 내에서는 정당성을 인정받으나 집단의 범위를 벗어나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Bax, 2013: 10-13; Wittgenstein, 1969: §166).

IV. 이성의 한계와 자유의 의미

1. 자유의 의미: 이성의 한계를 고려한 재해석

인간의 이성이 작동하는 원리, 즉 신경시스템과 언어와 논리가 작동하는 원리를 고려하여 자유의 의미를 규정한다면, 자유란 나오는 생각을 달리하는 다른 사람의 추론과 해석과 믿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이런 믿음에 기초한 제도와 이에 의한 간섭과 통제와 지배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다른 누군가의 해석이나 추론과 비교되고 자의적 기준에 의해 서열화되는 것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평등을 내포하고 있다.

어떤 판단이든 신경시스템의 해부학적 구조와 언어의 의미론적 구조, 그리고 논리적 여건에 기초하여 작동한다. 그런데 인간의 신경시스템은 애매하고 가변적이며 파편적이고 불확실한 자료와 가역불가능성의 위험 속에서 세계에 대한 해석과 추론을 얻어내기 위한 장치다. 철저히 경험에 의해 형성되지만 일단 학습하면 내용의 신뢰성과는 상관없이 의식적 통제가 어려운 자동적 추론머신이다(inference machine, Jos et al., 2010: 181; Friston & Stephan, 2007: 419). 진리나 공정한 해석이 아니라 생존과 일상의 유익을 위해 추론문제를 풀도록 진화된 자연발생적 컴퓨터를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Pinker, 1998: x; Tenenbaum et al., 2011: 1279).

어떤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에 도달했다면, 학습하고 이용하는 해석규칙이 다르

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함께 주어진 맥락자료가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선지식에 기초해 선별한 자료가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누구의 판단이 더 나은 것인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너무나 분명하고 생생하게 판단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추론과정에 내재된 함정과 상관없이 자신의 해석을 믿는다. 이때의 자유란 각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 발전시킨 추론머신에 의지하여 내린 해석과 추론을 선택할 자유를 의미한다.

언어적으로 보면, 자유란 세계에 대한 언어적 분류체계를 자유롭게 형성하고, 의미의 기반이 되는 어휘의 네트워크를 자유롭게 형성하며, 개념적 공간과 인공적인 해석의 맥락을 자유롭게 형성하며, 결과적으로는 세계와 인간과 삶에 대한 해석을 자유롭게 형성하고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물론, 이처럼 언어를 매개로 형성된 해석은 각자의 인공적이고 자의적인 믿음이다. 만일 이런 해석에 공감한다면 이를 토대로 사회제도와 질서를 형성할 수 있다(Searle, 2010). 그러나 어떤 언어적 해석을 강요하는 것은 언어의 의미론적 자의성을 망각한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논리적 차원에서 보면, 결정불충분성으로 인해 정답을 획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경험과 이념과 상황과 이론과 사상에 따라 판단을 진행하고, 사전적 전제와 해석체계와 개념공간을 선택하고, 내적일관성에 기초한 판단을 추구하고, 이렇게 얻은 결론을 선택할 자유를 의미한다. 사전 전제가 달라져도 결론은 달라지고, 중간매개이론이 달라져도 결론은 달라지고, 연구자가 중시하는 가치와 사상이 달라져도 결론을 달라진다. 이런 점에서 사회현상에 관한 이론적 지식 역시 일종의 믿음이며 추론이며 가설이다. 자발적인 공감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강요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우리 헌법은 양심의 자유(제19조), 종교의 자유(20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를 규정하고 있다. 학문과 종교와 세계와 인간 및 윤리에 관해 각자의 판단과 믿음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문제에 관해 정답이 있다면, 진리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면, 과학적 검증이 가능하다면 자유가 아니라 이를 선택하면 된다.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그 누구도 정답을 알 수는 없고, 결국은 각자의 믿음과 선택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처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에 대한 억압의 시발점 역시 인간 자신이다. 자기판단의 한계를 스스로 인식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방식으로 인간의 이성은 작동하기 때문이다. 법에 의해 일방적인 제약을 가하고 사회적 이익과 정의의 이름으로 이런 억압을 정당화하는 일도 이성의 한계에 대한 자기망각에서 기원한다. 그러나 인간의 신경시스템과 언어와 논리적 판단의 작동여건을 감안하면, 어떤 경우이든 법과 정책은 어떤 믿음에 의한 다른 믿

음의 억압을 의미한다. 내가 원하지 않는 종교를 단지 다수가 또는 연구자들이 또는 정치인들이 선호한다는 이유로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2. 이성의 한계와 억압의 성격

1) 이성의 표리부동성과 자기기만

과연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인가? 합리적인 정치와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적어도 현대 철학과 인지신경과학의 인식론에 비춰보면, 자신의 사고와 언어와 신경시스템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참조적’으로 볼 때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뿐이다. 자신의 인지하드웨어와 해석체계와 믿음을 배경으로 할 때 합리적일 뿐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성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있을 뿐이다. 누구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논리와 해석을 참조하여 내 자신의 판단을 반성하기 때문에 합리적일 뿐이다. 내 목표와 내 이념과 내 행복을 추구하는 데 합리적이고 이성적일 뿐이다.

이성의 작동방식은 ‘표리부동’하다. 자기기만적이다. 우선 투입되는 자극이나 정보의 편파성, 부분성, 가변성, 애매성에도 불구하고 마치 적어도 심리적으로는 너무나 안정적이고 확실하고 생생하게 느껴지도록 작동한다. 그러나 이런 느낌조차의 해석추론을 피할 수 없는 물리적 여건에서 생존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진화의 결과일 뿐이며, 내용의 사실성과 진실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Mark et al., 2010; Hoffman et al., 2014: 3). 인간의 이성은 본래 진리를 얻는 장치로 진화된 것이 아니며, 오랜 석기시대적 삶을 배경으로 형성되어 모든 것이 얽혀있는 현대적 삶의 여건에는 적절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삶에 유용한 지식을 얻기 위한 삶의 도구일 뿐이다(Pinker, 1989: 561; Cosmides et al., 1997: 15-16). 내적으로는 ‘추론머신’이지만 당사자에게는 ‘진리머신’으로 느껴진다. 인지의 형성과정을 보면 ‘환상’이지만, 당사자에게는 너무나 생생한 ‘실재’로 느껴진다.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작동하고 있는 의식을 망각하게 만들고, 의식 속에 스며있는 경험의존적 주관성과 추론과정의 한계도 인지하지 못하게 만든다. 진화생물학의 설명은 이런 ‘자기기만적인’ 인지방식이 인간의 생존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Hoffman, 2011; Hoffman et al., 2014).

자연과학은 이성의 자기기만 위험을 대상현상의 존재론적 특성과 정교한 측정도구 및 연구방법의 개발을 통해 극복했다. 그러나 사회현상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정치와 정책이 유토피아적 사고와 추상적 개념 그리고 이념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2) 이성의 한계와 구성적 합리주의

하이에크가 경고하는 것처럼 인간은 자신의 무지에 무지하다(unknown ignorance, 민경국, 2007: 123). 자신의 판단이 너무나 분명하고 생생하게 믿어지기 때문에 이 판단의 확실성을 의심하기 어렵다.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다른 해석의 가치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신의 이성에 대한 무한신뢰에 빠지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사회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도달한다. 하이에크가 비판하는 ‘구성적 합리주의’ 역시 표리부동하게 작동하는 인간 이성의 산물이다.

표리부동한 이성의 작동원리에 무지한 채, 각 집단이 자신의 판단에 맞춰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든다면 인간이 제도의 지배를 받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권혁철, 2008: 101). 표리부동한 이성과 구성적 합리주의가 민주주의와 결합하면 민주주의는 무제한적 민주주의가 된다. 법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권혁철, 2008: 93). 자유와 이성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 제도 역시 자의적 이성에 의한 자유의 억압 수단이 될 뿐이다. 결국 모든 법은 적어도 개인의 믿음에 기초하여 다른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점에서는 악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개인의 평등 역시 훼손한다.

롤스가 주장하는 원초적 상황(original position) 역시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의사결정을 위한 조건이 되지 않는 못한다.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배제한 채 순수하고 공정한 이성적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신경시스템은 철저하게 외부의 자극과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Costandi, 2016: 43-44; Travis, 2015). 경험이 많은 정보를 중심으로 세계에 대한 해석과 추론의 규칙을 구축한다(Gazzaniga, 2001: 94; Hoffman, 1983: 157). 주어진 자료를 종합하고 판단하는 자아 역시 이 경험 속에서 발생한다(Liang, 2015: 11; Northoff et al., 2006: 440). 사적인 이익에 해당하는 것은 설사 내려놓아도, 각자가 이해하고 있는 세계의 모습은 각자의 경험의 산물이다. 공통의 규칙에 공감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 공익과 공리 역시 합당한 공감과 동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독단이 될 뿐이다.

3) 부당한 억압과 자의적 지배

정책연구자들은 정책문제를 정의하는 것은 주어진 상황을 발견하고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과정이 아니라 ‘풀 수 있는’ ‘문제’를 ‘창조’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해왔다(Dorey, 2005: 8-11; Spector & Kitsuse, 1973; Wildavsky, 1987: 386-389). 법과 정책은 이렇게 만들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성과 언어의 한계에 비춰 보

면, 이렇게 '창조'되는 정책문제 역시 나에게서는 생생하게 느껴지는 문제일 수는 있어도 이런 생생함이 그 문제의 실재성이나 사실성을 보장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구성원 다수의 문제일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자신의 해석체계와 언어네트워크에 의지하는 이성의 작동방식에 비춰보면, 정책문제는 내 인지체계가 창조한 환상이며 해석적 허구다. 내 논리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는 자기기만적 추론물이다. <그림 1> 네커큐브를 보자. 이 그림을 해석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다. 보통은 이 자료를 보는 순간 이미 3차원의 큐브로 지각한다. 손으로 자료의 표면을 만져보면, 2차원의 평면 그림이다. 그러나 내 인지시스템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를 3차원의 입체물로 해석해 보여준다. 이것이 인간이 학습한 해석규칙과 능력의 작동방식이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어떤 방식으로 보게 만든다. 3차원 큐브로 보는 방법은 A면을 전면으로 볼 수도 있고, B면을 전면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인다. 자료 자체만으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림 3>의 콘스위트 착시를 생각해보자. 여기서 같은 것을 다르게, 즉 실제의 모습과는 다르게 현상을 지각하게 만드는 것은 대상 현상이 아니라 함께 주어진 자료와 이 자료를 자동적으로 이용하는 우리의 인지시스템이다. 즉 설사 동일한 자료가 주어져도 이의 해석을 위해 의지하는 참고자료에 따라 자료에 대한 해석결과는 달라진다. 즉 우리가 해석을 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참고하는 개념과 이론과 사상과 이념이 동일한 현상을 다르게 보게 만든다. 실제의 모습과 달리 보게 만든다. 그러나 신경시스템이 해석을 위해 스스로 참고자료를 선별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을 우리가 통제하지는 못한다. <그림 3>의 (a)의 경우 가운데 부분을 가리면 양면이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양면의 밝기가 같다는 점을 알아도 가린 부분을 볼 수 있게 하면 우리는 여전히 양면이 다른 것으로 본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인지과정을 통제하지 못한다.

정책문제 역시 동일한 신경시스템에 기초하여 동일한 추론과 해석의 방식으로 창조된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작동하고, 내가 가진 이념과 이론과 경험에 의해 같은 것도 다르게 보고, 실제의 모습과도 다르게 보게 만드는 이성에 의지하여 정책문제가 규정되고 필요한 규제와 제약도 만들어진다.

게다가 이렇게 창조된 정책문제와 해법을 놓고 투표로 해법을 결정한다. 각자의 인식과 해석체계에 기원하는 문제를 놓고, 이 과정에 대한 충분한 반성과 의심은 배제한 채 단순히 어떤 해법에 더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지를 묻는 것은 표리부동한 이성의 자기기만적 판단을 제도적으로 확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법과 정책은 특정집단의 이념·이해를 위한 다른 사회구성원의 수단화의 도구일 뿐이다. 진정한 공화

주의와 공감획득을 위한 '숙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양심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필히 동반한다.

네커큐브에 관해 다수결 투표를 통해 A면을 전면으로 보거나 B면을 전면으로 보기로 결정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 당사자가 판단하고 판단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의사결정방법이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방법이 될 수는 없다. 이때의 다수결은 상황과 해석에 따라 해석결과가 달라지는 문제를 두고, 다수의 해석을 강요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콘스위트평면의 양쪽 면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를 투표로 결정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 설사 양면의 밝기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도 다르게 보이도록 내 인지시스템은 작동한다. 내가 판단에 문제가 있음을 알아도 이런 의식적 이성이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내 해석시스템을 제어하지는 못한다. 설사 현실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도 이미 그렇게 보인다. 이런 판단의 결과에 따라 내가 다르게 보이므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 내가 그렇게 보는 것이 이미 현실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서술이 아니다. 실제와 다른 것임에도 내가 보기에 그렇다는 이유로 이를 법과 정책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3. 이성의 한계와의 대응과 자의적 지배의 견제

정책과정은 인간 합리성 가정과 이성에 대한 막연한 믿음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한편으로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성의 능력에 의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성의 약점에 노출되고 이성의 위협에 감염되는 것을 견제하고 예방하도록 정치구조와 정책결정과정 이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 이성의 한계와 자기기만 위협을 견제하지 못할 때, 인간의 믿음과 이념은 맹목적 충동과 무분별한 힘(senseless force)으로 변질될 수 있다(오영환, 2005: 29). 우리의 인지 시스템이 이렇게 작동한다. 이런 믿음과 이념을 법으로 만들고 정책으로 만들면, 유토피아를 추구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일이 일어난다(칼 포퍼, 2006: 262; Popper, 1994: 82). 이성의 능력을 중시하는 칸트의 철학에 비취 보면, 어떤 개념으로도 다른 개인의 유일성을 담아낼 수는 없다(강영안, 2005: 132). 그럼에도 굳이 '사회적'이거나 '공리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누군가의 목적을 위해 다른 누군가를 수단으로 삼고,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다른 누군가를 희생하고 개인의 자유와 개별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한다(Nozick, 1974: 33).

인간 이성의 작동원리와 내재된 약점을 드러내고 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후설은 현상학적 환원(phenomenological reduction)을 제안한다(Husserl, 1962: §39-43;

Heritage, 1984: 41; Schutz, 1962: 103-106, 122-123 등).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내가 동일한 이론, 개념, 가치관, 선지식 등을 모두 배제하고 주어진 자료 자체로 돌아가는 것이 현상학적 환원이다. 예를 들면, 네커큐브를 주어진 자료 자체의 모습으로 되돌리면 선분의 집합이 된다. 이점을 이해하면 이 자료를 큐브로 보는 것은 내 의식의 구성물임을 알 수 있다. 인지신경과학 역시 인식의 원리와 내적 한계를 돌이켜 볼 수 있게 한다.

인식주체로서의 개인의 개별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의 개선도 필요하다. 현상학의 인간 연구에 기초한 방법은 질적 연구의 방법이다(이남인, 2014). 이론에서부터 가설을 형성하고 검증하는 방법이 아니라 상황에 처한 당사자들이 자기의 언어로 서술한 자료에 기초하여 현상의 핵심 요소를 찾아내는 방법을 취한다. 특정집단의 이념이나 이론이 사회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정책화할 위험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입법 기술적으로는 각자가 이성적 주체인 개인들에게 보편적·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규칙을 법으로 제도화한다면 이는 개인의 개별성과 법의 획일성·공통성을 조화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Brown, 2014).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특정한 개인이 다른 개인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방서비스, 치안과 질서의 보호, 재산권의 보호와 같은 전통적인 공공재는 이런 기준과의 충돌이 덜하다.

그러나 개별기업이나 조직 및 산업의 다양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획일화된 입법 방식은 보편성의 기준과 충돌할 뿐 아니라 위해의 원칙과도 충돌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런 위해가 일어나지 않고 있음에도 정부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억압을 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교육, 노사관계 등 개별성이 강하여 공통 측면에 의한 개념화가 현상에 대한 오해를 초래하는 정책, 이념갈등에 쉽게 노출되는 정책, 유권자와 사회구성원의 직접적 견제와 참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정책일수록 이런 위험은 커진다.

정책에 동원되는 개념은 경제현상에 대한 개념에 비해 허구성과 비현실성과 추상성을 검증하는 것이 어렵다. 가령, 시장에서 구입하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가 '만족스럽다'고 말할 때는 신경뉴런의 '발화'라는 물리적 상태에 근거하여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소비자의 행동에 대한 이해와 예측도 가능하다(Glimcher et al., 2009). 정치에서 언어와 개념이 의미를 얻고 작동하는 방식은 경제에서와는 완전히 다르다. 의미가 애매하고 추상성이 높다. 이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는 것도 어렵다. 공허한 정책 공약이 남발되고, 무리하고 졸속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국민은 혼란을 겪어도 책임을 묻는 것은 더디고 어렵다.

이런 위험을 줄이려면 언어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것이 용이하고 행동결과를 통해 그 의미를 검증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당사자들이 구체적 상황에 함께 처하여, 현상

의 의미를 함께 해석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결과를 평가하여 정책을 수정하는 전체 과정을 숙의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함께 할 수 있을 때다. 최저임금이나 대학평가처럼 서로 다른 상황에 놓인 현상들을 동일한 기준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면 이때는 이미 정책과 현실이 괴리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실성을 상실한 만큼 정책으로 인한 억압의 위험도 커진다. 최저임금으로 인한 혼란과 고통 역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정책에 의해 자유를 억압당할 뿐 아니라 삶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당사자 중심의 정책 논의가 가능한 개별 조직 중심, 지역 중심, 관련자 중심의 문제 정의 및 해결책 모색이 정책으로 인한 억압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 사전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상황의 개별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후적이고 사법적인 방법이 유리하다. 대통령 중심,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정책은 인간 이성과 언어의 위험 그리고 이에 따른 정치의 위험에 훨씬 쉽게 빠진다.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지만, 다양성과 개별성이 강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여건에 전혀 있지 않다.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타협 기구 역시 획일화된 결론에 의해 모두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자유에는 더 심각한 위협이 된다. 또한 의사결정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제도의 발전에도 유익하지 않다.

V. 결론

모든 분야에서 정치와 정책과 법이 문제의 해결자로 다시 등장하고 있다. 화려한 개념을 앞세워 자율적인 선택과 계약의 자유를 유린하는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 헌법이 양심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 것은 삶의 수단인 이성이 역사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공격과 억압과 말살에 기꺼이 봉사해 왔기 때문이다. 내 믿음과 내 이념과 종교와 사상을 앞세워 상대에 대한 탄압을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인간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비윤리적 억압에 대해 현대철학과 인지신경과학은 분명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의 인지시스템은 본래부터 실재와 허구를 면밀히 구별할 수 있는 해부학적 여건에 있지 않다. 심지어 내가 생생히 경험하는 창밖의 세상조차도 세상이 실재 그렇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너무나 생생하게 세상을 경험하고, 생존을 위해서는 이런 경험을 의심하는 대신 믿음을 선택했다. 믿음을 선택하도록 진화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다.

그러나 삶의 여건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삶을 위해 진화된 인간의 이성과 인지시스템

이 오히려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을 촉발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적 경험과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내 선택의 결과에 내가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는 설사 추론의 결과라도 이를 믿고 행동하면서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나 내 선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내 해석과 믿음을 모두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인간의 인지시스템은 이렇게 신중하고 정직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 설사 내가 책임을 지지 못해도 내 판단이 옳고 정의롭고 이에 맞춰 세상을 바꿀만하다고 착각하도록 작동하고 있다. 이미 상대가 틀렸고, 상대가 비난을 받아야 하고, 상대의 행동이 규제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도달해 있다.

정치도 이성과 언어의 약점을 이용하고, 이를 견제해야 할 학문도 인간의 실존성을 치밀하게 서술해 보여주는 대신, 수량화된 자료로 인간과 사회를 재단하는 방법을 기꺼이 제안하고 있다. 결국 삶의 주체인 개인이 제도의 식민으로 전락하고 있다. 당사자 간 자발적인 합의가 제3자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억압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법과 정책이 특정집단의 언어적 허구와 자의적 해석에 의지하면서 법이 갖춰야 할 일반성이 상실되고, 결과적으로 법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법이 '정의'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이성의 한계와 인지의 표리부동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법에 의한 정의 역시 개인의 자유와 실존에 대한 억압이 될 뿐이다.

자유가 소중한 것은 단지 인간의 이성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추론과 믿음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성의 한계에 대응할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획일화된 법과 정책에 의지하는 중앙집중적인 정책 방식으로는 자유를 억압할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성의 능력을 이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성의 위협에 대응할 기회도 함께 빼앗는다. 인간의 합리성을 기대하는 전통적인 인식론은 폐기되어야 하며, 이에 기초해 형성된 정치제도 역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강영안. (2005).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주)문학과지성사
 구연상. (2011). 「하이데거의 존재물언에 대한 강의」. 채륜.
 권혁철. (2008). 법(Law)과 입법(Legislation)의 구분과 의미. 「제도와 경제」. 제2권 제1호.
 로버트 노직. 남경희 역. 2016.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자유주의 국가의 철학적 기초」. 문학과 지성사
 민경국. (2007). 롤즈와 하이에크: 서민층과 자유주의. 「철학과 현실」. 통권 73호.

- 밀 J. S. 이극찬 역. (1998). 「자유론」. 삼성출판사.
- 사공영호. (2015a). 「제도와 철학: 제도와 정책의 현상학-언어철학적 탐구와 비판」. 대영문화사.
- _____. (2015b). '틀린' 정책문제정의: 의미와 기원. 「한국정책학회보」. 제24권 3호.
- _____. (2017). 리바이어던의 재림: 대학평가의 탈맥락적 통제도구화 비판. 「한국정책학회보」. 제26권 4호.
- _____. (2018). 자유에 대한 자의적 억압의 기원. 「한국정책학회보」. 제27권 3호.
- _____. (2019). 분석의 성격. 「한국정책학회보」. 제28권 제1호.
- 새뮤얼 헌팅턴. 형선호 역. (2006). 「새뮤얼 헌팅턴의 미국」. 김영사.
- 알렉시스 드 토크빌, 임효선·박지동 역(1997). 「미국의 민주주의」. 박영물출판사.
- 오영환. 2005. 화이트헤드의 문명론과 형이상학. 화이트헤드(Whitehead, Alfred North). 오영환 역. 「관념의 모험」. 한길사.
- 이남인. (2014). 「현상학과 질적 연구: 응용현상학의 한 지평」. 한길사.
- 이정진. (2005). 「경제학에서 본 정치와 정부」. 박영사.
- 임마누엘 칸트. (2007). 「윤리형이상학 정초」. 아카넷.
- 존 R. 설. 정승현 역. (2007). 「마인드」. 까치.
- 찰스 샌더스 퍼스. 김동식. 이유선 옮김. (2008). 「퍼스의 기호학」. 나남.
- 최병선. (2015). 윌다브스키의 정책학. 「행정논총」. 제53권 제4호.
- 칼포퍼. 이한구 역. (2006). 「열린 사회와 그 적들 I」. 민음사.
- 토마스 S. 쿤. 김명자 역. (1992). 「과학혁명의 구조」. 두산잡지BU.
- 토머스 길로비치·리 로스. (2015). 「이 방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한국경제신문.
- 토머스 홉스. 신석용 역. (2012). 「리바이어던 1: 교회국가 및 시민국가의 재료와 형태 및 권력」. 나남.
- 판. K.T. 황경식·이운형 역. (1989).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이란 무엇인가?」 서광사
- 패트리샤 처칠랜드, 박제운 역. (2006). 「뇌과학과 철학」. 철학과 현실사.
- 프랜시스 후쿠야마. 구승희 역. (1996). 「트러스트」. 한국경제신문사.
-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김균 역. (1997). 「자유현정론」. 자유기업센터
- _____. 신중섭 역. (1996). 「치명적 자만」. 자유기업센터.
- 피터 L. 버거·토마스 루크만. (2013). 「지식의 사회적 구성」. 문학과지성사.
- 황재학. (2011). 불확실성과 합리성 그리고 정부 개입: 케인즈와 하이에크. 「경제학연구」. 제59권 4호
- Albert, Marc K & Donald D Hoffman. (2000). "The Generic-viewpoint Assumption and Illusory Contours". *Perception*. 29(3): 303-12.
- Anderson, Judith L. (2001). "Stone-Age Minds at Work on 21st Century Science: How Cognitive Psychology can Inform Conservation Biology". www.conservationmagazine.org.
- Anderson, Terry L., and P. J. Hill. (1979). "An American Experiment in Anarcho-Capitalism: the

- Not So Wild, Wild West".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 3, no.1.
- Bax, Chantal. (2013). "Reading On Certainty through the Lens of Cavell: Scepticism, Dogmatism and the "Groundlessness of our Believing". *International Journal of Philosophical Studies*. 21(4).
- Bellah, Robert N., Richard Madsen, William M. Sullivan, Ann Swilder and Steven M. Tipton. (1996). *Habits of the Hear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loor, David. (1997). *Wittgenstein, Rules and Institutions*. Routledge.
- Braver, Lee. (2007). *A Thing of This World: A History of Continental Anti-Realism*.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Brink, David. (2016). "Mill's Moral and Political Philosophy".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https://plato.stanford.edu/archives/win2016/entries/mill-moral-political/>
- Brown, Curtis. (2014). Kant's Ethics: Some Key Ideas.
http://www.trinity.edu/cbrown/intro/kant_ethics.html.
- Brunner, Ronald D.. (1991). "The Policy Movement as a Policy Problem". *Policy Sciences*. 24: 65-98.
- Carter, Ian. (2012). "Positive and Negative Liberty".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 Casasanto, D. & Lupyan, G. (2015). "All Concepts are Ad Hoc Concepts". In *The Conceptual Mind: New Directions in the Study of Concepts*. E. Margolis & S. Laurence (Eds.) pp. 543-566. Cambridge: MIT Press.
- Clark, Andy. (2016). *Surfing Uncertainty: Prediction, Action, and the Embodied Mind*. Oxford University Press.
- Clark, Herbert H. (1997). "Dogmas of Understanding". *Discourse Processes*. 23:3.
- Cosmides, Leda & John Tooby. (1997). "Evolutionary Psychology: A Primer".
<http://citeseerx.ist.psu.edu/viewdoc/download?doi=10.1.1.576.5409&rep=rep1&type=pdf>
- Costandi, Moheb. (2016). *Neuroplasticity*. The MIT Press.
- Dorey, Peter. (2005). *Policy Making in Britain: An Introduction*. SAGE Publications Ltd.
- Espeland, W. Nelson & Michael Sauder. (2007). "Ranking and Reactivity: How Public Measures Recreate Social World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3(1).
- Festenstein, Matthew. (2014). "Dewey's Political Philosophy".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http://plato.stanford.edu/archives/spr2014/entries/dewey-political/>
- Follesdal, Dagfinn. (1994). "Mind and Meaning". *Philosophical Studies*. 94.
- Friston, Karl. & Klaas E. Stephan. (2007) "Free-energy and the Brain". *Synthese*. 159: 417-458.
- Frith, Chris. (2007). *Making up the Mind: How the Brain Creates Our mental World*. Blackwell.

- Garfinkel, Harold. (1967). *Studies in Ethnomethodology*. Polity Press.
- Gazzaniga, Michael S. (2011). *Who's in Charge?: Free Will and the Science of the Brain*. HarperCollins Publishers.
- Glanzberg, Michael. (2014). *Truth*.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 Glimcher, Paul W., Ernst Fehr, Colin F. Camerer & Russell A. Poldrack. (ed). (2009). *Neuroeconomics: Decision Making And The Brain*. Elsevier Inc.
- Gutting, Gary. (2014). Michel Foucault.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 Hales, Steven D. and Rex Welshon. (2000). *Nietzsche's Perspectivism*,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Hayek, F. A.. (1982). *Law, Legislation and Liberty*. Routhledge & Kegan Paul.
- Heidegger, Martin. (1979). *Nietzsche: The Will to Power as Art, The Eternal Recurrence of the Same*, translated by David Farrell Krell, Harper Collins Publishers.
- Heritage, John. (1984). *Garfinkel and Ethnomethodology*. Polity Press.
- Hoffman, Donald D. (1998). *Visual Intelligence: How We Create what We See*. Norton & Company Inc.
- _____. (2003). Does perception replicate the external world? *Commentary in Behavioral & Brain Sciences*. Vol. 26.
- _____. (2011). "Human Vision as a Reality Engine". J.D. Blom & I. Sommer (Eds.) *Hallucination: Research and Practice*. Springer Verlag.
<http://www.cogsci.uci.edu/~ddhoff/HoffmanPubs.html>
- Hoffman, Donald D. & Chetan Prakash. (2014). "Objects of Consciousness". *Frontiers in Psychology*. Vol. 5.
- Hohwy, Jakob. (2017a). "How to Entrain Your Evil Demon". Metzinger, Thomas & Wanja Wiese (Eds.), *Philosophy and Predictive Processing*. MIND Group.
- _____. (2017b). "Vanilla PP for Philosophers: A Primer on Predictive Processing". Metzinger, Thomas & Wanja Wiese eds. *Philosophy and Predictive Processing*. MIND Group.
- Husserl, Edmund. (1962). *The Crises of European Sciences and Transcendental Phenomenology: An introduction to Phenomenological Philosophy*, translated and with An Introduction by David Carr, Northwestern University.
- _____. (2001). *Analyses Concerning Passive and Active Synthesis: Lecture on Transcendental Logic*. trans. Anthony J. Steinbock. Kluwer Academic Publishers.
- Jos, J. A. & Van Berkum. (2010). "The Brain is a Prediction Machine that Cares about Good and Bad - Any Implications for Neuropragmatics?". *Italian Journal of Linguistics*. 22(1): 181-208.

- Jost, John T., H. Hannah Nam, David M. Amodio, Jay J. Van Bavel. (2014). "Political Neuroscience: The Beginning of a Beautiful Friendship". *Advances in Political Psychology, Vol. 35, Suppl. 1, 2014*.
- Kahneman, Daniel. (2011). *Thinking Fast and Slow*. Penguin Books.
- Kemp, Charles, Amy Perfors, & Joshua B. Tenenbaum. (2007). "Learning Overhypotheses with Hierarchical Bayesian Models". *Developmental Science*. 10:3.
- Lamme, Victor. (2015). "The Crack of Dawn: Perceptual Functions and Neural Mechanisms that Mark the Transition from Unconscious Processing to Conscious Vision". Metzinger, T. & J. M. Windt (Eds). *Open MIND: 22(T)*. Frankfurt am Main: MIND Group.
- Liang, Caleb. (2015). "Self-as-Subject and Experiential Ownership". In T. Metzinger & J. M. Windt (Eds). *Open MIND: 24(T)*. Frankfurt am Main: MIND Group.
- Locke, John. (1689).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http://www.earlymoderntexts.com/assets/pdfs/locke1689a.pdf>
- Lupyan, G. & Bergen, B. (2016). "How language programs the mind". *Top Cogn Sci*. 8(2).
- Lupyan, Gary & Andy Clark. (2015). "Words and the World: Predictive Coding and the Language-Perception-Cognition Interfac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4(4).
- Mark, Justin T. Brian B. Marion, Donald D. Hoffman. (2010). "Natural Selection and Veridical Perceptions". *Journal of Theoretical Biology*. 266.
- Mill, John Stuart. (1859). *On Liberty*. Batoche Books
- Mooney, Chris.. (2011). "Your Brain on Politics: The Cognitive Neuroscience of Liberals and Conservatives". *Discover*. September 7.
- Nietzsche, Friedrich. (1967). *The Will to Power*. Random House, Inc.
- Noë, Alva. (2004). *Action in Perception*. The MIT Press
- North, Douglass. C., (1990), *Institution,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orth, Douglass. C., William Summerhill, and Barry R. Weingast, (2000), "Order, Disorder and Economic Change: Latin America vs. North America", in Bruce Bueno de Mesquita and Hilton Root, ed., *Governing for Prosperity*, Yale University Press.
- Nozick, Robert. (2013). *Anarchy, State, and Utopia*. Basic Books.
- O'Regan, J. Kevin. (1992). "Solving the "Real" Mysteries of Visual Perception: the World as an Outside Memory". *Canadian Journal of Psychology*. 46(3).
- _____. (2011). *Why Red Doesn't Sound Like a Bell: Understanding the Leel of Consciousness*. Oxford University Press.

- Pinker, Steven. (1989). *How the Mind Works*. Penguin Books.
- Pizlo, Zyg. (2018). "The Role of Symmetry in Veridical 3D Shape Perception". UCI Media.
- Popper, Karl. (1994). *The Myth of the Framework*. Routledge.
- Purves, Dale, Amita Shimpri, and R. Beau Lotto (1999). "An Empirical Explanation of the Cornsweet Effect". *The Journal of Neuroscience*. 19(19).
- Putnam, Hilary. (1981). *Reason, Truth and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utnam, T.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rty, Richard. (1989). *Contingency, Irony, and Solidar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ffran, J. R. (2001). Words in a sea of sounds: the output of infant statistical learning. *Cognition*. 81. (2).
- Schutz, Alfred. (1962). *Collected Papers1: The Problem of Social Reality*. Maurice Natanson & H.L. Van Breda. (ed). Martinus Nijhoff.
- Searle, John R. (1995). *The Construction of Social Reality*. The Free Press.
- _____. (2010). *Making The Social World*. Oxford Univ. Press.
- Seth, Anil K. (2017). "How Does Consciousness Happen?". TED 특강 동영상.
- Spector, Malcolm & John I. Kitsuse. (1973). "Social Problems: A Re-Formulation". *Social Problems*. 21.
- Stanford, Kyle. (2013). "Underdetermination of Scientific Theory".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 Stigler, George J., (1975), *The Citizen and the State: Essays in Regul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enenbaum, Joshua B. Charles Kemp, Thomas L. Griffiths, Noah D. Goodman. (2011). "How to Grow a Mind: Statistics, Structure, and Abstraction". *Science*. 331.
- Travis, Fred. (2015). *Your Brain is a River, Not a Rock*. Brain Center.
- Verweij, Marco. Timothy J. Senior. Juan F. Domínguez D. and Robert Turner. (2015). "Emotion, rationality, and decision-making: how to link affective and social neuroscience with social theory". *Frontiers in Neuroscience*. vol. 9.
- Wildavsky, Aron. (1987). *Speaking Truth to Power*. Transaction Publishers.
- Wittgenstein, Ludwig. (1953). *Philosophical Investigation*, trans, G.E.M. Anscombe & P.M.S. Hacker and Joachim Schulte, Wiley-Blackwell. 또는 김양순 역 (2008). 「철학탐구」. 동서문화사.
- _____. (1969). *On Certainty*. G.E.M. Anscombe and G.H. von Wright (eds). Blackwell Publishing.
- Zhaoping, Li. (2014). *Understanding vision: theory, models, and data*. Ox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Limitations of Human Reason and the Meaning of Liberty

Yungho Sakong

According to evolutionary biology, the human mind evolved through natural selection to solve problems that were life-and-death matters to our ancestors, not to strive for correctness or to deal with any social problems. The human brain resides inside the dark room of the skull. It cannot contact directly with the outside world. It only consists of innumerable firings of neurons. The neural system is forced and trained, however, to produce certain perceptions or judgements based on the firing neurons. There is no way to perceive except for bold inferences based on rules of interpretation acquired from past experience and numerous interpretative errors. Certain beliefs are given to the outcomes of the cognitive system to run the system efficiently. Language and words are the tools for the creation of the context and units of interpretation. Regardless of the subjectivity and self-referentiality of interpretation, the human neural system works to experience the outcome 'vividly'.

However vivid it might be, there could be no fair cognition of the world free from individually-formed rules of interpretation. Arbitrary suppression comes from this double-faced human reasoning. The vividness of experience blinds the need to question the contingency of human reasoning and its outcomes. Even policy, which is not based on common understanding and agreement, can be an apparatus of coercion enforcing certain subjective interpretations over all others. Liberty is valuable because it gives a chance not to follow others forcibly against one's own will. Policy not based on principles of liberty cannot harmonize the public interest and individual human existence.

【Keywords: liberty, reason, cognitive neural system, inference, interpretation, creation of context, inverse problem, controlled hallucination, double-faced human reason】